

[1] 의무경찰이란 무엇인가?

의무경찰이란 병역 의무 기간 동안 군복무 대신 업무 보조를 하는 경찰이라고 합니다. 아직 감이 잘 안오시나요?

의무경찰은 크게 기동대, 방순대, 타격대로 나뉩니다. 기동대는 현장에 나가서 시위를 막는 일을 주로 하구요, 방순대는 방법순찰대의 약자로 방법순찰을 도는 의경을 말 하구요, 타격대는 경찰서 안에서 근무하는 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 조현오 경찰청장께서 의경을 개혁한 뒤로, 경쟁률이 꾸준히 상승하여 작년에는 20대1의 경쟁률을 넘기도 하였습니다. (서울청 기준 461명 모집, 8800명 지원)

1. 의무경찰의 종류

의무경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의경, 두 번째로 어학병과 대형운전병 같은 특기의경, 세 번째로 독도수비대와 산악구조의경 같은 특수의경입니다.

이 책에서는 일반적인 일반의경의 합격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겠습니다.

2. 의무경찰의 혜택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의무경찰에 지원하는 것일까요? 군대마저 서열을 매기는 것이 웃기긴 하다만 사회에 가까운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보자면 카투사 > 의무소방, 의무경찰입니다. 카투사에 탈락한 사람들이 의무소방, 의무경찰에 지원하면서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었고, 또한 의경이 개편된 후 일반 군대대신 의경에 가서 상대적으로 편한 군 생활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증가로 경쟁률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 전 조현오 경찰청장의 의경개혁

의경이 개편되었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의경은 가혹행위, 구타가 매우 심했습니다. 시위를 진압하는 버스에서 대기할 때 구타로 인해 죽을 맛 이었다는 사람들도 많았고, 물 금지, 화장실 금지 등의 가혹행위가 심했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1월 강원지방경찰청 307전경대에서 선임들의 구타와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이경 6명이 부대를 집단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이경들은 선임들의 이런 행동들을 신고하였고 전 경찰청장은 가혹행위가 일어난 부대를 해체하였고 이후 전국적으로 의경에 소원수리 제도가 생겼습니다. 소원수리 제도를 통해 선임의 가혹행위와 구타행위가 적발되면 선임은 타부대로 전출하고 신고한 후임은 14박15일의 휴가를 얻게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심한 가혹행위와 구타를 방관한 부대의 직원들을 막기 위해 부대폭파(해체)도 과감히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의경은 선진 병영을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서울의 한 부대에서 의경 성추행 사건이 터졌는데 경찰청장이 직접 방문하여 경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 의무경찰의 복지 그리고 혜택

① 1주일에 2회 휴일 (1회 외출가능) 그리고 8주 간격의 3박4일의 휴가

아마 카투사 다음으로 의경이 사회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연고지 복무

운이 나쁘다면 지방에서 서울로 근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연고지 복무를 지향해서 집과 가까워 휴가복귀시간이 다른 군에 비해 적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복무하기 때문에 사회와 격리된 군대와 달라 멘탈적으로 여유롭습니다. (이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③ 각종 특박

의경은 다른 군과 다르게 자격증 특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익 700점 이상은 1일, 800점 이상은 1박2일, 한국사능력시험 1급은 2박3일 등등 자격증 특박을 많이 주기 때문에 자기 계발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No-Touch Time

의경에는 노-터치 타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후 후임이 자기계발이나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 선임이라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경에서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용되어 부대 분위기가 안 좋은 곳도 충분히 많습니다.

3) 의무경찰의 단점

장점만 있다면 좋겠지만, 항상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① 불규칙한 생활

다른 군대들은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군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의경은 다음날 일과를 오후 11시, 12시 쯤 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다가 끌려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야근무라고 새벽까지 깨어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여름의 강도는 엄청 힘들다.

여름은 각종시위들의 꽃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여러 차례 열립니다. 의경은 여름에 거의 매일 불려나가 대기하여 시위를 안전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 단점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겨울이 되면 추워서 시위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에 겨울에는 의경이 시간이 매우 많은 편입니다.

③ 기수제도

의경은 타 군의 계급제와 다르게 기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가 꼬이게 되면 상경의 경우에 잡일을 다 맡아야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1년 9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자기 계발을 열심히 하면서 보내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외출과 휴가를 자주 나와 사회와 격리되고 싶지 않다면!! 의경에 지원하시고 성취하세요!

[2] 적성시험 대비

-1 맞춤법

(1 흡연을 삼가해 주십시오.

=> 삼가해(X) 삼가(○)

주십시오(x) 주십시오(○) (요청문에서 종결어미는 요를 쓸 수 없습니다.
"오"를 써야합니다.)

안절부절하다 (x) 안절부절 못하다(○)

(2 하든/하던

'-던'은 지난 일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 '-든'은 조건이나 선택을 뜻하는
말입니다.

-든(지) : 네가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가다'와 '가지 않다'에서 선택)

-던 : 삼단같이 곱던 머리(지난 일을 나타냄)

-던지 : 어찌나 아팠던지, 죽는 줄 알았어(지난 일을 나타냄)

네가 그일을 하던 말던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 하든 말든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2 띄어쓰기

(1 조사는 그 앞머리에 붙여 쓴다.

ex) 우리누나는 꽃 입니다.(x) 꽃입니다(○)

(2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ex) 그가 떠난 지가 오래다.

(3 열거하는 말은 띄어 쓴다.

ex) 국장 겸 과장

(4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ex) 옷 한 벌

-3 기타 상식문제 대비

(1 셰익스피어의 4대비극 : '햄릿', '오셀로', '리어왕', '맥베스'

로미오와 줄리엣은 5대 비극!

(2) 레드존 :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블루존 : 청소년 보호 구역

(3) 4대 의무: 병역, 납세, 교육, 근로

선거의 의무는 해당X

(4) 우리나라 보물1호: 동대문(흥인지문) 국보1호 남대문(승례문)

(5) 최초의 신소설: 혈의 누

최초의 한글소설: 홍길동전

(6) 적조와 녹조의 차이

적조: 바다에서 일어남 녹조: 강이나 호수에서 발생

[3] 면접시험 대비

거의 의경시험이 면접에서 갈린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면접입니다.

저는 서울청에서 5번의 시험동안 상식질문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 그리고 의경에 대해서만 질문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방의 청들은 따로 상식을 준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간혹, 나는 면접 준비를 하나도 안했는데 합격했어!! 라고 많이들 듣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학창시절에 생각해보면.. 굳이 대본이나 준비를

하지 않아도 PPT 발표나 토론대회에서 말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이 준비를 따로하지 않고도 즉흥적으로 대답을 잘

할 수 있다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준비

를 해야합니다.

2) 예상 질문과 예상 답변을 만들자

예상 질문에 예상 답변을 만들자니?? 이게 무슨 소리 일까요?

면접관들이 내가 예상한 질문을 한다는 보장도 없거니와, 예상 답변대로 대답을 한다면 뭔가 틀에 박혀 보일 것 같습니다.

저는 면접 준비라는 것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질문을 만들다보면 예를 들어 자신의 장, 단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것과 다르지만 응용한 질문.. 예를 들어 당신을 의경으로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에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며 좋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3) 5번의 시험동안 들은 질문을 공개하겠습니다.

면접을 보는 인원은 항상 다릅니다. 보통 4명~8명 이렇게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1분 이내로 말하라고 합니다.

그 후 공통질문1개와 개별 질문1개를 추가로 받고 면접이 끝나는 편입니다.

첫 시험에서의 면접관분은 제 예상 질문을 뛰어넘으신 분 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1분 이내로 자기소개와 지원동기를 말씀해보세요

두 번째 질문: 내가 의경이 꼭 되어야한다 라는 이유 말씀해보세요

세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어필할말 있으면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다 비슷비슷한 것을 물어보지만 준비를 제대로 못하다보니 비슷한 대답을 해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능동적으로 질문을 주시는 면접관분들도 있는 반면, 이렇게 지원 자분들이 능동적으로 어필을 해야 하는 면접관분들도 계셨습니다.